

고교학점제 선택 폭 넓힌다

전북교육청, 28일부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등 총 95개 맞춤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 수업으로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91개와 학교 밖 교육(주말강좌) 4개 등 총 95개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1학기 79개 과목에서 16개 늘어난 규모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자율형 공립고와 일반고, 전북외국어고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목을 인근 거점학교

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학기에는 전주고와 양천고 등 32개 거점학교에서 인공지는 수학 생명과학 실험, 고급 물리학 등 9개 과목이 개설되며 약 1,300명의 학생에게 수강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거점학교에 방과후나 주말에 직접 출석하는 오프라인 방식뿐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방식,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강 방법을 도입해 학생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일반계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교육은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말강좌는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탐구(우석대), 대전환 경제탐구

(원광대), 문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원광대), 첨단 물리학(전주대) 등 4개 강좌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거점학교와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두 과정 모두 9월 오후 6시까지 '전북 고교학점제 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은이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학교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주관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심 국·공립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국립군산대학교 제공)

국립군산대 “국가중심 국·공립대 역할 강화해야”

국회도서관 토론회 개최... 여야 국회의원·대학 관계자 400여명 참석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주관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심 국·공립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립군산대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와 주요 보직자 등 20여 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 대학 구성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립경국대 정태주 총장이 '지역균형발전(5극 3축 체계 안착)을 위한 권역 내 지역 거점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서울

과학기술대 김동환 총장이 '과학기술 중점대학의 특성화 발전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립순천대 이병문 총장이 좌장을 맡아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안주란 과장, 한국대학신문 최용섭 주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 교육혁신' 국정과제와 5극 3축 체계 정책과 연계해 국가중심 국·공립대의 역할을 논의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 국

립대 9곳(서울대 제외)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함께 지역에 뿌리를 둔 국가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안정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군산대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지역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중심 국·공립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국립군산대, 이차전지 부트캠프 사업설명회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4일 참여학과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목표와 교육 과정, 장학 혜택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단은 2025년도 운영 성과를 공유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스터디집·견학 프로그램 △취업캠프 및 맞춤형 컨설팅 △장학금 및 자격증 지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와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지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전구체, 재활용 셀 분야의 고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한층 체계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새학기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전북교육청,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기간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집단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소수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과 방역 물품 확보 여부,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방역

수칙 안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실시 및 확인, 감염병 발생 현황의 일일 파악과 보고 체계 점검, 초·중학교 신입생 필수 예방접종 홍보와 접종 이력 확인 등이다.

특히 학교별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방역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의 현장 점검을 병행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항을 담은 교육 자료를 각 학교에 안내해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임영근 전북교육청 문예체전과장은 "집중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우리 국민 노벨평화상 추천... 그 힘은 교육에서”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경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제안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국민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을 계기로 '경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6일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북도교육청과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 4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모델' 구축이다. 전북 교육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민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2일 발표한 '12·3 계엄 교육



으로 만든다'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확장한 것이다. 당시 그는 민주주의 위기를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헌법교육 강화 △헌법시민교육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경험 중심 시민교육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시민을 길러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전북 민주시민교육 5대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실행 전략은 △전북 민주주의·평화교육 공동 선언 추진 △전북 전 학교 민주시민교육 주간 운영 △학생 참여 민주주의 시민 프로젝트 추진 △전북 민주주의 교육 아카이브 구축 △국제 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특히 전북 모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 토론 모의 시민의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경험 중심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참여 민주주의 시민 프로젝트와 민주주의 교육 아카이브 구축, 국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4주체 시민교육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전북 교육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시민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민주화운동인 '3·8민주의거'를 언급하며 "3·8민주의거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며 "학생 역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배우고 실천할 때 지속된다"며 "전북 교육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전북교육의 새 희망 심을 것”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5일 오후 4시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에 위치한 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현 후원회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뜻을 함께 나눴다. 행사장은 천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로부터 북적이며 성황을 이뤘다.

김용현 후원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 후보의 후원회를 넘어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전북교육의 희망을 함께 심기 위해 모인 뜻 깊은 자리"라며 "전북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책상 위 행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천호성 예비후보는 평생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어온 정진한 교육 전문가로, 실천과 소통을 통해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5일 오후 4시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에 위치한 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전북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은 제 교육 인생의 길에서 늘 함께해 온 분들"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웃고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을 때 전북의 미래

도 함께 밝아간다"며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으로 전북교육의 희망을 다시 세우고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북교육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차례로 자신을 소개하며 천호성 예비후보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천 후보가 참석자들과 감사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이어가며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개소식이 마무리됐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소년체전 대표 선발전 돌입

체전은 5월 부산시 일원서, 지난 1월 배드민턴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종목 선발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전북 대표 선발전에 돌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도내 각 경기장에서 전북 대표 선발전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5월 29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대표 선발전은 지난 1월 배드민턴 종목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월부터 4월 초까지 초등부(12세 이하) 24종목, 중등부(15세 이하) 24종목, 통합부(스포츠) 1종목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발전이 이어진다.

초등부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골프 바둑 승마 등 24종목에서 선발전이 치러진다.

중등부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전북 대표 선발전에 돌입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도 검도 양궁 사격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골프 바둑 승마 등 24종목에서 전북 대표 선수를 가린다.

각 종목 선수들은 전북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의 경기는 주말에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공정한 선발과 안전한 경기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대표 선발 이후 선수들이 본 대회에서 최상

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과 참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영근 전북교육청 문예체전과과장은 "전북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바란다"며 "선수들의 안전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발전을 진행하고 최고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